

---

# 재한 중국 유학생의 여가만족과 희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왕방\*, 이창식\*\*

## The Effects of Leisure Satisfaction and Hope on Korean University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Wang Fang\*, Chang Seek Lee\*\*

**요약** 본 연구는 충남, 서울, 인천의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재한 중국 유학생 361명을 대상으로 여가만족과 희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고, 조사도구로 여가만족 척도 24문항, 희망 척도 12문항, 대학생활 적응 척도 6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에 적용된 통계기법은 빈도분석, 평균비교분석,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이었다. 첫째,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학습과정에 따라 어학연수 집단이 학부와 대학원이상 집단보다 높았으며 체류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 집단이 가장 높았다. 둘째,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여가만족, 희망의 주도, 경로사고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가만족과 희망의 주도사고와 경로사고이며, 그 중에서 여가만족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주제어** : 재한 중국 유학생, 여가만족, 희망, 경로사고, 주도사고, 대학생활 적응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leisure satisfaction and hope on korean university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61 chinese students among three universities located in Chungnam, Seoul and Incheon. Frequency, reliability, mean compari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nese students in the language training group was better in the Korean university adjustment than those in each group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The chinese students who stayed less than six months in Korea were better in the Korean university adjustment than those who stayed more than 6 months. Second, there was th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among chinese students' korean university adjustment, leisure satisfaction, and hope. Third, leisure satisfaction and hope significantly influenced korean university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Among them, leisure satisfaction influenced most. korean university adjustment.

**Key Words** : Chinese Students in Korea, Leisure Satisfaction, Hope, Agency Thinking, Pathway Thinking, Korean University Adjustment

---

### 1. 서론

현재 한국은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있으며 최근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2011.12.31)에 의하면 정규 학위 과정과 어학

연수원에 등록된 학생을 포함하여 한국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총 88,468명이며, 이 가운데 중국 유학생은 65,271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7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이후 한중 수교 및 문화 개방으로 많은 한국 교포 및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에 기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서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석사과정.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3년 2월 6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3년 3월 13일, 확정일: 2013년 3월 20일

인하며,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문화적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 유학생의 증가는 이들의 한국에서의 적응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 제한 중국 유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를 옮겨 다니는가 하면 대학을 이탈하여 불법 위장취업을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적응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제한 중국 유학생들은 정체성 형성이 중요한 과제인 청년기에 있기 때문에 한국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새로운 환경으로부터 오는 적응 문제로 인하여 정체성 형성을 유예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적응, 진로고민,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문화부적응, 향수, 고독의 문제도 극복해야 하며 때때로 현지인과 상호작용 시 문화의 대표 역할도 하도록 압력 받기도 한다[28].

한편 유학생들은 대학생활을 통해 한국문화와 동시에 하위문화로서 한국의 대학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이들이 경험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일차적인 생활세계인 대학생활에서의 적응이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1]. 특히, 유학생의 경우 익숙한 기존 환경을 떠나 언어, 음식, 사회규범과 관습, 생활방식 등이 생소한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이러한 갑작스럽고도 급격한 환경변화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생의 신분으로 더 좋은 교육을 받으러 외국에 간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그 나라와 대학에서 적응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함으로 그 중압감은 오히려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관심 및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여가는 휴식 및 회복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키고 인성의 발달, 자기실현과 자아를 표현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15][43]. 대학생들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을 개발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자기실현과 사회적 역할을 배우게 되며, 대학생들의 여가생활 관리는 성공적인 대학생활의 적응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14]. 이처럼 여가활동은 대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낮은 한국 대학에 공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에게 만족한

여가생활이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직장인, 주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가에 관한 연구는 다수이나 한국의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가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희망은 현실에 근거를 둔 미래의 목표달성을 위한 긍정적 기대이며 개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강한 내면적 힘을 지닌 다차원적인 구조이다[2]. Snyder는 인간의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라 가정하고 희망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나 경로를 찾는 경로사고(pathway thinking)와 그러한 경로를 활용하여 목표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동기화하는 주도사고(agency thinking)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즉, 희망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찾아내고, 이러한 경로를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생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37]. 이러한 이유로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이며,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지각하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40]. 또한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회적 지지망을 생각하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하였다[17].

중국 유학생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해 무한한 동경과 한국 대학생활에 높은 기대를 갖고 유학생활을 시작하나 대학생활에서 많은 어려움과 부적응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희망수준이 높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를 찾는 반면에 희망수준이 낮은 학생은 도피한다. 이에 따라 희망이 중국 유학생에게 성공적인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제한 중국 유학생 대상으로 희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과 여가만족, 희망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이들이 대학생활을 더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어떠한가?, 둘째, 제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여가만족, 희망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제한 중국 유학생의 여가만족과 희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여가만족

여가만족은 여가활동 참여자가 여가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주관적 감정을 뜻한다. 즉, 개인이 선택한 여가활동 참가의 결과로 얻어지며, 개인이 형성유도하거나 획득하는 긍정적 인식 또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33].

여가활동을 통해 개인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개인의 심리적 욕구의 충족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생활만족, 그리고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42]. 따라서 대학생의 여가활동은 삶의 질적 향상, 자아실현 및 행복추구 그리고 건강유지 및 증진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제한 중국 유학생의 여가실태를 살펴보면 여가활동 유형이 단일하고 여가빈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중국인 학생들은 대부분 여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6].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은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도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13].

### 2.2 희망

Snyder 등은 희망이란 성공적인 경로와 주도가 상호작용적으로 조직된 사고의 긍정적 동기 상태로 정의하였다[39]. 즉, 희망은 원하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찾아내고 이러한 경로를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36]. 또한 희망이란 희망지향적인 에너지인 '주도사고(agency thinking)'와 희망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인 '경로사고(pathway thinking)' 간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긍정적인 동기부여 상태로 간주한다[39]. 즉, 주도적 사고(Agency thinking)란 개인이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경로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각된 능력을 나타내며, 경로사고(Pathway thinking)란 개인이 목표달성에 필요한 가능한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지각된 능력을 나타낸다.

희망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고[11][34],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얻고[30], 더 적은 외로움을 느낀다[41]는 결과들이 밝혀졌으며 희망수준이 낮은 대학생에 비해 희망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보다 활력

과 자신감이 넘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38].

또한 국내의 경우 고위험 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나혜진[9]의 연구에서 희망 수준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교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 적응을 유지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장은영[22]은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학교적응 높은 결과를 내렸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에서도 희망과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학생은 희망을 품고 유학의 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희망이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2.3 대학생활 적응

적응이란 환경에 대한 자발적·창조적 행동이며 그 필수조건으로 행동의 결과가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회의 가치·규범·질서에 합치되는 상태라고 보았다[29]. 대학생활 적응은 개인 내적인 적응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적응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3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학생활 적응이란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말한다[4]. 대학에서 적응한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겪는 적응 문제는 적응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청년기에 겪게 되는 대학생활 적응 문제와 외국인으로서 겪게 되는 대학생활 적응 문제를 모두 경험하기 때문이다.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학생활 적응이란 한국의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환경에 의해 건강이나 행복을 잃지 않고 능동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며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자신의 삶을 유의미한 것으로 가꾸어 나가는 매사의 노력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19]. 그러나 현실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생활 적응을 수월하게 해내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난제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생활 적응보다는 대학생활 부적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8]. 이에 따라 몇 가지 변인들은 제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하였다. 그 중 학업성취, 언어능력, 대인관계 형성, 사회지지, 중국·한국 간 문화차이와 여가활동은 대학생

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이라는 환경에서의 적응 문제는 장래에 독립된 성인으로서 당면할 현안과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성숙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12].

### 2.4 여가만족과 희망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활의 다양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주로 결정이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여가활동의 참여 및 역할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35]. 김수연·이은경[3]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치관, 여가 및 시간관리, 학업생활, 가족관계, 경제 및 주거, 대인관계 변인을 제시하였다. 한편 손유진[14]는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와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긍정관계를 제시하며 이진화[18]는 여가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업 적응 및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홍지수[27]는 희망과 학교적응에 대한 긍정적 관계를 제시하였고 희망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학교적응을 잘한다고 보고하였다.

## 3. 연구방법

###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여가만족과 희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충청남도 S시에 소재한 H대학교,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K대학교 및 대전광역시 소재한 Z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전체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설문지에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6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재한 중국 유학생 361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38.9%, 여자 61.1%로 여자가 많았으며, 연령의 범위는 22~26세가 65.8%로 절반 이상이었다. 체류기간은 2년 이상이 46.0%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과정은 학부가 60.7%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24.9%, 어학연수 14.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능력 수준은 TOPIK 2급이 30.9%,

TOPIK 3급이 23.5%, TOPIK 4급이 18.0% 순 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N	%
성 별	남자	140	38.9
	여자	220	61.1
연 령	17~21세	103	28.9
	22~26세	234	65.8
	27~31세	18	5
	32세이상	1	0.3
체류 기간	6개월미만	63	17.5
	6개월~1년미만	29	8
	1년~1년 6개월미만	42	11.6
	1년 6개월~2년미만	61	16.9
학습 과정	2년이상	166	46
	어학연수	52	14.4
	학부	219	60.7
한국어 능력	대학원이상	90	24.9
	TOPIK1급	44	12.2
	TOPIK2급	112	30.9
	TOPIK3급	85	23.5
	TOPIK4급	65	18
	TOPIK5급	37	10.2
TOPIK6급	16	4.4	

## 3.2 조사도구

### 3.2.1 여가만족

본 연구에서 여가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Beard와 Ragheb[33]가 개발하고 소원익[16]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 Likert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s a 는 .927이었다.

### 3.2.2 희망

희망을 측정하기 위해서 Snyder 등[39]의 희망척도를 최윤희·이희경·이동귀[24]가 개발한 한국판 희망척도(K-DH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주도 사고 4문항, 경로사고 4문항, 허위문항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3점 척도로 1점 '그렇지 않다'부터 3점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주도사고 Cronbach's a =.652, 경로사고 Cronbach's a =.618이었다.

### 3.2.3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의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ker &

Siryk[32]가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 척도를 현진원[25]이 번안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기에 부적합한 문항을 제외하여 총 66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Cronbach’s a 값은 .909이었다.

### 3.2.4 통계변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을 성별, 연령, 학습과정, 한국체류기간, 한국어능력수준 등 총 5문항으로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 학습과정은 ‘어학연수’, ‘학부’와 ‘대학원이상’ 세 단계로 구성하였으며 한국체류기간은 한국에 유학 온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문항이며 “6개월 미만”부터 “2년 이상”까지 5개 척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능력수준은 한국 국가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관리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성적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한국어수준은 1급부터 6급까지 총 6급이다.

### 3.4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One-way ANOVA, 그리고 사후검증을 하기 위해 Duncan을 활용하였고 대학생활 적응과 여가만족, 희망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 4. 결과 및 해석

### 4.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일반적 특성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도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 및 One-way-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으로 Duncan을 실행한 결과 <표 2>와 같다. 제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학습과정과 체류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제한 중국 유학생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제한 중국 유학생의 대

학생 생활 적응은 학습과정에 따라 어학연수 집단이 학부와 대학원이상 집단보다 높았다. 또한 체류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 집단이 6개월~2년 이상인 집단보다 높았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차이

구분	N	M	SD	t값/F	Duncan	
성별	남	140	3.2033	.31461	-1.499	
	여	220	3.2541	.31246		
연령	17-21	103	3.2289	.31959	2.607	N.S.
	22-26	234	3.2202	.29847		
	27-31	18	3.4268	.33278		
	32이상	6	3.3183	.55795		
	합계	361	3.2346	.31346		
학습과정	어학연수	52	3.3624	.35077	5.678**	A
	학부	219	3.2018	.27945		B
	대학원이상	90	3.2406	.35133		B
	합계	361	3.2346	.31346		
체류기간	6개월 미만	63	3.3682	.32814	4.008**	A
	6개월~1년 미만	29	3.2077	.32429		B
	1년~1년 6개월 미만	42	3.2271	.24967		B
	1년 6개월~2년 미만	61	3.1611	.27000		B
	2년 이상	166	3.2176	.32378		B
	합계	361	3.2346	.31346		

\*\*p<.01

### 4.2 대학생활 적응과 여가만족, 희망과의 관계

제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여가만족, 희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제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여가만족과 희망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여가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상관관계가 r=.400 이상으로 나타나 보통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한편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대학생활 적응은 5점 만점에 3.2314점과 여가만족은 3.3513점으로 중간(3점)보다 높았으며, 희망의 하위영역인 주도사고는 3점 만점에 2.2542점, 경로사고는 2.4289점으로 모두 중간(2점)보다 높았다. 따라서 제한 중국 유학생 여가만족, 희망은 모두 중간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여가만족, 희망과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여가 만족	희망		대학 생활 적응	M	SD
		주도 사고	경로 사고			
여가만족	1	.372***	.351***	.438***	3.3513	.49146
희망	주도 사고	1	.586***	.400***	2.2542	.41974
	경로 사고		1	.429***	2.4289	.40517
대학생활 적응				1	3.2314	.31005

\*\*\*P<.001

### 4.3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함 결과 <표 4>와 같다. 먼저 잔차의 독립성을 파악하는 Durbin-Watson은 1.819로 정상범위 1-4 이내의 값을 가지며, 극단치를 파악하는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는 각각 1.183-30.301, 0.000-0.103, 그리고 중심화된 Leverage 값은 0.003-0.084로 정상범위 값을 가졌으며, 다중공선성을 파악하는 공차한계(Tolerance)는 0.551-0.967, 그리고 상승변량(VIF)은 1.034-1.815로 각각 정상범위 1 이하와 1-9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은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변인은 개인적 특성의 성별, 연령, 학습과정, 체류기간을 투입하였으며, 독립변인은 여가만족과 희망의 하위영역인 주도사고와 경로사고를 투입하였다. 투입한 독립변인은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31.7% 설명하였으며, 통계변인인 일반적 특성은 4.2%, 여가만족은 17.2%, 희망은 10.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만족이 가장 높은 설명량을 보였다.

모형3에서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희망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이 중 여가만족이 가장 큰 기여도를 나타냈다. 또한 희망의 하위영역을 보면 주도사고보다 경로사고가 상대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표 4〉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구 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일반적 특성	성별 (남=1)	-.045(-.070)	-.062(-.096)*	-.058(-.091)*
	연령	.070(.134)*	.057(.108)*	.059(.112)*
	학습 과정	-.013(-.026)	-.012(-.025)	-.025(-.050)
	체류 기간	-.033(-.161)*	-.024(-.117)	-.020(-.098)
여가만족			.267(.418)***	.176(.275)***
희망	주도사고			.113(.152)**
	경로사고			.184(.239)***
F		3.906**	19.342***	23.308***
R <sup>2</sup> 변화량		.042	.172	.102
R <sup>2</sup>		.042**	.215***	.317***

\*p<.05, \*\*p<.01, \*\*\*p<.001

## 5.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여가만족, 희망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서 원만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학습과정에 따라 어학연수 집단이 학부와 대학원 이상 집단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Baker[31]가 보고한 신입생 신화(freshman myth)와 유사하며,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 통한다. 신입생들은 입학 전 자신의 능력과 대학에 대해서 신화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입학 후 실제 대학생활에서 지각하는 자신의 적응 능력과 대학에 대한 만족도는 기대보다 떨어지므로 실제 입학 당시 측정된 점수보다 낮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학생활 적응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재한 중국 유학생이 학부와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학생이 어학연수보다는 수업내용이 더 어렵고 과제도 더 많아서 학업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학연수과정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만의 동일집단만이 존재하다 학부와 대학원 이상에서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가 만나 문화충격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체류기간에 따

라 6개월 미만 집단이 6개월~2년 이상인 집단보다 높았다. 이 결과는 장성우[21]의 연구에서 유학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업적응과 개인정서 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장아남[20]은 한국에서 체류기간 6개월 이하 집단이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적응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훈[10]의 연구결과는 대학생활 적응도는 체류기간이 0~6개월일 때 가장 높다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있다는 조은정[23]의 연구 결과 유사하다.

셋째, 제한 중국 유학생은 대학생활 적응과 여가만족, 희망의 정적관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희망과 학교 적응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힌 장은영[22], 김초선[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나혜진[9]의 연구결과는 희망은 학교적응과 학교적응 하위요인들과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이진화[18]는 여가만족과 학교생활 적응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 내용과 같이 여가만족, 희망과 학교적응은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대학교육에 있어 상호작용을 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인임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유학생에게 성공적인 유학을 위한 지침은 제한 중국 유학생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의견이 다음과 같다.

넷째, 제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여가만족과 희망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영향을 살펴본 변인 중에서 여가만족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희망의 하위영역인 경로사고와 주도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제한 중국 유학생의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주도사고와 경로사고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희망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장은영[22]의 연구와 중학생들의 학교적응에는 희망이 유의한 설명을 해 준 김초선[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위험사건을 통제하고 희망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남혜진[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제한 중국 유학생의 여가만족도와 희망 수준을 증진시킨다면 대학생활 적응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제한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한 학생지도나 생활지도 프로그램에서 희망 수준을 증진시키는 활동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습과정, 체류기간, 여가만족, 희망에 대한 6가지 변인에 대해서 대학생활 적응을 규명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여가만족과 대학생활 적응을 하위영역별로 분석하지 못하였고 전체적인 값으로 분석하였다. 앞으로 하위영역별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 연구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제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방안 및 여가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및 대학의 중국 유학생 유치방안과 여가복지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1] 김광일 · 허준영 (1997). 제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양상에 대한 연구. 정신건강연구, 16, 166-178.
- [2]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박사학위논문.
- [3] 김수영 · 이은경 (1996). 대학생의 삶에 대한만족도 연구-삶의 질 관련변인 조사를 위한 예비연구. 이화여대 대학생 생활연구, 32(1), 74-93.
- [4] 김은정 (1992).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연세상담연구, 8, 85-114.
- [5] 김초선 (2008). 남 · 여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 희망 · 진로의식성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김택호 (2004).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김혜경 (2008).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치료 프로그램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나임순 (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2), 159-197.
- [9] 나혜진 (2009). 고위험 집단 청소년에서 희망과 스트레스 대처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두흔 (2012). 중국인 유학생의 Glasser 내·외부통제 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적응도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박지영 · 이창식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0(11), 665-672.
- [12] 박현진 (199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가족체계 유형과 대학생활적응에 관한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배경호 (2008). 주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여가참여유형 및 참여정도에 따른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14] 손유진 (2003). 대학생의 동아리 및 여가참여 유무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석사학위논문.
- [15] 송기정 (2002). 스포츠 활동 참여유형이 주부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 교석사학위논문.
- [16] 송원익 (2004). 도시근로자의 여가참여형태 및 제약이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7] 이종길 (199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8] 이진화 (2007). 여가활동과 과외학습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이재모 (2008).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실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장아남 (2009). 재한 중국 유학생이 지각한 대학환경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장성우 (2012). 중국인유학생의 여가제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2] 장은영 (2004). 희망이 성취동기, 학교적응,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조은정 (2010). 중국인 유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차이.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4] 최유희 · 이희경 · 이동귀 (2008). Snyder의 희망척도 한국 번역판의 타당화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2), 1-16.
- [25] 현진원 (1992). 완벽주의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6] 홍경완 (1999). 중국인 유학생들의 여가제약 연구. 관광연구, 24(2). 45-64.
- [27] 홍지수 (2010). 희망과 자기효능감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 황혜연 (2007).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9] Allport, G. W. (1961). *Pattern &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Rinheart.
- [30] Barnum, D. D., Snyder, C. R., Rapoff, M. A., Mani, M. M., & Thompson, R. (1998). Hope and social support i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pediatric burn survivors and matched controls. *Children's Health Care*, 27, 15-30.
- [31] Baker, R. W., Mcneil, O. V., & Siryk, B (1985). Expectation and reality in freshman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94~103.
- [32]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 [33] Beard, J. G & Ragheb, M. G.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20-23.
- [34] Feldman, D. B., & Snyder, C. R. (2000). The State Hope Scale. In J. Maltby, C. A. Lewis, and A. Hill(Eds).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ts* (pp. 240-245). Lampter. Wales, UK: Edwin Mellen Press.
- [35] Kimball, A., & Freysinger, V. J. (2003). Leisure, Stress, and Coping: The Sport Participation of Collegiate Student Athletes. *Leisure Sciences*, 25, 115-141.
- [36] Snyder, C. R. (1994a). Hope and optimism. In V. S. Ramachandran (Ed.) *Encyclopaedia of Human Behavior*, vol. 2 (pp. 535-54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37] Snyder, C. R. (1994b).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Free press.
- [38]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Yoshinobu, L., Gibb, J., Langelle, C., & Harney, P. (1991). The will



-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 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70-585.
- [39] Snyder, C. R., Irving, L. M., & Anderson, J. (1991). Hope and health. In C. R. Snyder & D. R. Forsyth (Eds.)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Elmsford, NY: Pergamon Press.
- [40] Snyder, C. R., Wicklund, C. & Cheavens, J. (1999, Boston). Hope and success in college. Paper presented at an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41] Sympson, S. (1999). Validation of the Domain Specific Hope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Lawrence.
- [42] Tinsley, H. E. A. & Eldredge, B. D. (1995). Psychological benefits of leisure participation: A taxonomy of leisure activities based on their need-gratifying propert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2), 123-132.
- [43] Tinsley, H. E. A., & Tinsley, D. J. (1986). A Theory of the attitudes, benefits, and causes of Leisure experience. *Leisure science*. 1-45.

### 왕 방



- 2007년 9월~2010년 7월 : 중국 지주대학 한국어응용학과
- 2010년 9월~2012년 2월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문학사)
- 2012년 3월~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석사과정
- 관심분야 : 청소년, 다문화, 기부

· E-Mail : benbenxiaoxiongff@163.com

### 이 창 식



- 1998년 2월~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 2012년 3월~현재 : 한서대학교 다문화교육복지연구소 소장
- 2012년 3월~현재 : 아시아기부문화연구단 단장
- 관심분야 : 평생교육, 다문화교육, 부모교육, 나눔교육

· E-Mail : lee1246@hanmail.net